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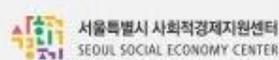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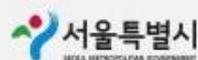
2018  
전문가 초청  
기술연수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지역 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혁신

일시 2018. 1. 17(수) 10:00-16:30

장소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청년허브 다목적홀(미래청 1층)





## 티에리 장떼(Thierry Jeantet)



### 학 력

파리 정치대학 졸(공공 서비스)  
파리 제1대학 경제과학 석사  
오스트리아 빈 대학 독어 학사

### 수여 받은 작위

프랑스 공로훈장 기사(Chevalier de l'Ordre du Mérite)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기사(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폴란드 레지옹 레스타타 훈장 장교(Officier de la Légion Restituta)

### 경 력

1973 ~ 1981.10 은행 협동조합 'Crédit Coopératif' 조직 및 IT 부서, 중앙 부서, 및 관리부(Direction des Engagements) 부장 보좌관, 사무차장 및 은행 및 은행 네트워크(경영관리, 회계, 금융 및 기타) 이사장 역임

1981.10 ~ 1985. 6 부처 간 대표(Interministerial Delegate) 보좌관, 사회 경제부 관리직, 주가 증권 발행 관리, 사회경제발전기구 조직위원회 책임장. 협동조합은행, 상호 신용은행, 상호 보험사간 관계 관리, 농림어업 분야 관련 관계 책임

1985. 6 ~ 1986. 5 국무총리 보고서 '사회 경제학에 의한 프랑스의 현대화 (La Modernisation de la France par l'Économie Sociale)' 책임

1986. 3 ~ 1992.10 상호공제보험조합 그룹 'GEMA' 사무총장 역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 보험 협의회 및 보험 감독관리 위원회 의원, 협동조합 및 상호 보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

1992.10 ~ 2015. 6 유럽 상호공제보험서비스그룹(Eureasa GEIE) 회장. 이 그룹에는 la Macif et la Maif(프랑스), UnipolSai(이탈리아), DEVK(독일), P&V(벨기에), Matmut(프랑스), Lagun Aro(스페인), Atlantis(스페인), TUV(폴란드), Syneteristiki(그리스), MAMDA(Morocco), LB Group(덴마크)와 IMA(프랑스)가 가입함

### 현 재

1987 ~ 프랑스 Macif 그룹 상호부조보험사 Mutavie 부사장  
2000 ~ 프랑스 생명보험사 La Mondiale 이사장  
2013 ~ 리스크 위원회(Comité des Risques) 총장  
2008 ~ SGAM AG2R-La Mondiale 이사장(예방보건관리 보험 및 퇴직보험 상호 공동그룹); 전략위원회 위원  
또한, 현 폴란드 상호부조 TUV 부총장  
현 그리스 보험 협동조합 Syneteristiki 이사장

### 협동조합, 상호보험조합, 협회 및 단체 관련 활동

(과거 활동 내역)

- 상호 활동 협동조합 및 협회 국가 연락 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 CNLAMCA) 부총장
- France Active 위원회 위원(위원회의 조직과 창립에 기여)
- 사회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고용연대부와 사회경제부 및 사회혁신부의 부서간 대표단)
- CJDES 총장
- 프랑스-폴란드 연대(Solidarité France-Pologne) 공동창립 (현재 활동)
- Macif 재단 위원회 위원(고용창출, 차별 철폐, 시민의식 고양) 및 유럽 사회경제재단 네트워크(Pôle Européen des Fondations de l'Économie Sociale) 위원회 위원
- AG2R-La Mondiale 재단 및 재단 내 과학 위원회 이사회 이사
- 사회연대경제 국제 포럼(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Forum International, ESS-FI) 총장 및 공동창립자

### 경제 사회 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CES)

- 전 경제사회 위원회 위원 (1999-2004)
- 동 기간 동안 생산 활동 분야 부총장 역임

### 시 의원 당선 이후 활동

오른 주 Mortagne-au-Perche에 당선된 의원, 지역 공동체인 Commune du pays du Perche에 의해 빠룩슈 자연공원(Parc régional Naturel du Perche) 대표자로 선정됨

### 사회적경제 관련 집필 활동

- *La révolution conviviale*, avec M. Porta et J.-R. Siegfried (Entente - 1979)
- Rapport sur le financement de l'Economie Sociale (1981-1982) dans le cadre de la Commission Dautresme désignée par le gouvernement ;
- *L'Economie Sociale*, avec R. Verdier (CIEM - 1983)
- *L'individu collectif* (Syros - 1984)
- *La Modernisation de la France par l'Economie Sociale* (Economica - 1986)
- *Démocratie directe / Démocratie moderne* (Entente - 1991)
- *Rapport sur les coopérations trans-européennes des coopératives, mutuelles et associations* (IVème Rencontres Européennes de l'Economie Sociale) - 1993
- *L'Economie Sociale en Action* - Rapport au Comité Consultatif de l'Economie Sociale (France) (Editions CIEM - La Découverte 1995)
- *L'Economie Sociale européenne* (Editions Liocorno en Italie et CIEM en France, 2000) (paru également au Portugal en 2002 et en Espagne en 2002 et 2004)
- *L'Economie Sociale face au XXIè siècle* (Documentation française, 2002)
- *L'Economie Sociale, La Solidarité au défi de l'efficacité* (Documentation Française 2009) (et une édition en Japonais)
- *L'Economie Sociale, une Alternative au Capitalisme* (Edition Economica 2008. Edition Portugaise 2009, en Allemand 2010)

- *Sociétale Démocratie* (Entretien avec Yan de Kerorguen) (Lignes de Repère, Place Publique 2012)
- *Des Croissances* (Editions Bourin 2014)
- *L'Economie Sociale , la Solidarité au défi de l'efficacité* (nouvelle édition à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6)

### (공동 집필)

- *L'Economie Sociale une Alternative Planétaire* (Co direction avec J.Ph. Poulnot) (Edition Ch. L. Mayer 2007)
- *L'Economie Sociale : Une réponse aux Enjeux Internationaux* (Editions le Manuscrit 2012)

# 1. 프랑스와 유럽의 사회경제적 환경

## A.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5% (약 900억 유로)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비중을 보인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166,000개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국내총생산(PIB)의 10%로 추산하였다.

### - 고용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파노라마-2015년 판)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를 살펴보면 현재 221,325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2,370,31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 사회연대경제의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10~1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 노동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10.3%에서 10.5%로 상승했다-민간단체(Association)가 78%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협동조합이 13%, 공제조합과 재단은 비록 수적으로는 적은 편이지만 2010년 이래 고용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의 근린조직으로 구성된 경제라는 이미지를 준다. 하지만 85%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중규모 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민간경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볼 때 사회연대경제는 상대적으로 중규모 조직이 더 많고 소기업이 더 적은 편이다. 직원이 250명 이상인 조직(특히 의료-사회서비스와 일반교육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는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B. 유럽에서

[표] 유럽연합 전체 유급 근로자와 사회연대경제 유급 근로자 비교(2009~2010)

### - 뒷장 표 참조(출처: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2014), CIRIEC)

2009년~2010년 유럽 15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 일자리가 전체 임금 부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1%로 추정된다. 한편 신입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27개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1,450만여 명을 유급으로 고용하고 있다.

## C.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2013년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300개의 협동조합을 분류한 『글로벌300』을 발간했다. 이 협동조합들은 2조97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보험 분야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이 그중 41%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국제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초반 이후 매우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제 보험공제조합과 협동조합연맹(ICMIF)이 발간한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보험산업은 2013년에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보험공제조합과 협동조합들의 보험료 수입은 2007년과 2013년 사이

에 28%가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에 보험 전체시장은 11%가 증가했을 뿐이다. 그 결과 보험공  
 제조합과 협동조합들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에 23.8%에서 2013년 27.3%로 높아졌다. 국제 보험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연맹(ICMIF)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공제조합과 협동조합 분야는 1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9억1500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금융, 건강,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때로는 프랑스, 유럽,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농산물 가공 또는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도)에 노출되고, 때로는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비록 분야에 따라 발전수준의 차이는 있  
 지만 프랑스와 유럽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해서 뿌리내린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표] 유럽연합 전체 유급 근로자와 사회연대경제 유급 근로자 비교(2009~2010)

Table 6.2 Paid employment in the social economy compared with total paid employment in the EU (2009-2010), in thousands

Country	Employment in the SE	Total employment	%
Austria	233.53	4,096.30	5.70%
Belgium	462.54	4,488.70	10.30%
Denmark	195.49	2,706.10	7.22%
Finland	187.2	2,447.50	7.65%
France	2,318.54	25,692.30	9.02%
Germany	2,458.58	38,737.80	6.35%
Greece	117.12	4,388.60	2.67%
Ireland	98.74	1,847.80	5.34%
Italy	2,228.01	22,872.30	9.74%
Luxembourg	16.11	220.8	7.30%
Portugal	251.1	4,978.20	5.04%
Netherlands	856.05	8,370.20	10.23%
Spain	1,243.15	18,456.50	6.74%
Sweden	507.21	4,545.80	11.16%
United Kingdom	1,633.00	28,941.50	5.64%
<b>New Member States</b>			
Bulgaria	121.3	3,052.80	3.97%
Cyprus	5.07	385.1	1.32%
Czech Republic	160.09	4,885.20	3.28%
Estonia	37.85	570.9	6.63%
Hungary	178.21	3,781.20	4.71%
Latvia	0.44	940.9	0.05%
Lithuania	8.97	1,343.70	0.67%
Malta	1.68	164.2	1.02%
Poland	592.8	15,960.50	3.71%
Romania	163.35	9,239.40	1.77%
Slovakia	44.91	2,317.50	1.94%
Slovenia	7.09	966	0.73%
<b>Acceding and Candidate Countries</b>			
Croatia	9.08	1,541.20	0.59%
Iceland	0.22	163.8	0.13%
<b>TOTAL EU-15</b>	<b>12,806.37</b>	<b>172,790.40</b>	<b>7.41%</b>
<b>TOTAL EU-27</b>	<b>14,128.13</b>	<b>216,397.80</b>	<b>6.53%</b>

\* Working population aged 16-65, Eurostat, 2010.

## 2.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부 조직

### A. 니콜라 율로, '생태전환과 연대부'(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특히 자연 중시와 보호, 생물 다양성, 녹색기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특히 요금 관련), 기후, 자연재해 예방과 기술, 산업 안전, 교통과 인프라, 시설, 해양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한다.

환경부 장관은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그 자격으로 기후에 관해 유럽과 국제적 협상을 주도하고, 외교부 장관과 협의 하에 체결된 협정의 실행을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촉진과 발전을 담당한다.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과 관련한 연구, 교육,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참여한다.

### B.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고등판무관에 관한 시행령 n° 2017-1317 (2017.9.4)

- 해당 대상: 행정기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의 촉진과 발전 정책과 관련된 모든 주체
- 목적: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고등판무관 신설
- 발효시점: 시행령 공포 다음날부터 발효
- 설명: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 전속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고등판무관을 신설한다. 시행령은 그가 관할하게 될 임무를 명확히 한다.

\*참조 : 시행령은 프랑스 정부의 법령 공식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http://www.legifrance.gouv.fr>)

총리는

환경부 장관의 보고와

사회연대경제법 n° 2014-856 (2014. 7.31.)에 비추어보아

#### 제1조. 조항 자세히 보기(사회연대경제법)

- 시행령: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고등판무관을 신설한다.

고등판무관은 아래에 명시된 범정부적 권한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에 관한 여러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고 활성화한다;
2.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의 촉진·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표자들과 공공행정기관의 관계 속에서 각 정부 부처의 모든 사업을 조정하도록 한다;
3. 이 분야를 담당하는 유럽과 국제기구에서 프랑스를 대표 한다;
4. 앞서 언급된 사회연대경제법 n° 2014-856 제1조에 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 방식과 경제발전을 장려한다;

## 제2조. 조항 자세히 보기(사회연대경제법)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처와 연대 부처에 사업보고를 한다. 다른 부처의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부처의 요청에 따라 보고를 할 수 있다.

역주 \*사회서비스, 사회통합과 연대, 공중보건,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보건과 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고등판무관은 사회연대경제 담당부처 산하 조직에 요청해 사회연대경제 관할부처에 사회연대경제 행정관, 사회통합국, 고용·직업훈련국, 지역균형위원회, 세제국, 청소년·시민교육·민간단체활동국, 연구·혁신국, 노동국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기업국, 재정관리국, 전략과 장기경제전망 위원회 등의 배치도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 조항 자세히 보기(사회연대경제법)

이 시행령의 실행을 맡은 환경부 장관은 프랑스 공화국의 관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4일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

환경부 장관, 니콜라 율로

C. 사회연대경제 범부처 기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소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담당 부처가 달라졌을지라도 전부터(1981년 10월 이후) 있었다. 간헐적으로 부처에 비서관을 두기도 했다. 2012~2014년에 처음으로 사회연대경제 특임장관을 두었고 2014~2017년 5월까지의 상공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회연대경제 업무를 맡기도 했다.

### 3. 공제조합/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공제조합의 중요성

역주 \*상호조합, 공제조합, 상호공제조합, 상호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됨. 이 글에서는 공제조합으로 번역

#### A. 프랑스에서 재산상호보험(출처 livre Th J)

역주 \*보험은 사고발생의 객체에 따라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의 두 가지로 구분

몇 년 전부터 Macif, Maif, Matmut, Maaf, GMF, Mapa, MFA, AMF처럼 중개인이 없거나 사회적경제의 지배구조를 갖춘 보험공제조합이 개인 자동차와 개인 주택보험 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다. 대형 보험공제조합그룹에 가입된 회사들이 고용하는 직원만 해도 58,000명에 달한다.

2014년 말, 손해보험은 약 18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2,600만 명의 조합원(이 중 2,050만 명이 자동차, 종합주택, 민사책임배상보험 가입자)을 두고 있다. 10년간 1,000만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말 GEMA의 회원 공제조합은 530만 명의 보험 가입자를 두었고, 113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10년간 거의 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4년 GEMA의 회원이 된 Groupama로 대표되는 농업보험공제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첫 번째 농업보험업자인 Groupama는 34,000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1,300만 명의 조합원과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과 책임보험에서 2014년 말 133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역주 \*미국에서는 손해를 재산(property insurance)과 책임으로 구분

생명보험에서의 순보험료는 2014년에 29억 유로에 달했고, 잔고는 1,050억 유로로 높아졌다.

몇 년 전부터, 공제조합들은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그들 사이(SGA M : Covea, AG2R La Mondiale, Sferen 등)에, 의료상호보험(pôle Macif Mutualité, Maaf Santé 등) 또는 협동조합은행과 시너지를 창출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보험공제조합은 매출과 조합원, 직원 수의 증가에서 확인되듯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오늘날 인구노령화와 관련된 수요 -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보장 - 를 요청받고 있다. 공공재정 적자가 사회보장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 시기에 공제조합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프랑스보험협회에는 보험공제조합 본부가 있다.

## B. 프랑스 의료공제조합(출처 Livre Th J)

프랑스인 2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다. 의료보험공제조합은 두 개 조직으로 그룹화되어 있다: 거의 모든 프랑스의 의료공제조합이 결집한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맹(FNMF)과 농업사회적공제조합(MSA), 업종공제조합전국연맹(FNIM)도 있다.

### 128 > 사회적경제 - 효율성과 양립하는 연대

1,800만 명이 가입한 프랑스공제조합(Mutualité française)의 회원 조합은 약 3,800만 명의 프랑스인을 보호한다. 2013년에 프랑스공제조합은 민간의료보험으로서 총 200억 유로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프랑스공제조합은 2,500개 조직, 85,000명 이상의 직원, 그중 15,000명의 보건전문가를 갖춘 프랑스 첫 번째 민영의료보험기관으로서 위생과 사회서비스, 의료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합병 과정에 직면한 공제조합은 그 수가 2008년 800개에서 2013년에 450개가 되었다. 5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에 지속됐고 2016년에는 특히 선도적인 공제조합 두 곳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하모니 공제조합과 교직원공제조합; 연초에는 독립공제조합전국연맹(FNIM)과 업종공제조합전국연맹 간 통합이 발표되는 등 연합회 수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에 따른 제약과 규모의 한계 모색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직, 보험회사들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공제조합이 의료비 환급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보상금이 전체 민영보험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58.8%에서 2013년 52.8%로 감소했다. 이는 7년간 6%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표 11] 수익을 통해 본 공제조합의 사업 구성 (출처: DREES, 전국의료통계, 2013, 2010년 기준)

사업형태	총 100%
병원진료	14.8%
약 제조	16.4%
환자 수송	0.7%
외부진료	33.6%
의료재산	15.2%
운영비	19.4%

농업사회적공제조합(MSA)로 보자면, MSA는 농업 종사자(생산자,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보충적이고 적법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에 540만 명을 커버했다. 2013년 중반 MSA는 102억 유로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였고 274억 유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금은 독립공제조합전국연합(FNIM)을 통해 150만 명의 농업종사자들이 보장을 받고 있다.

109. 출처: FNMF 프랑스공제조합 통계, 10월

### **C. 전 세계 보험공제조합(출처 ICMIF)**

2015년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세계시장 정보지도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국제연맹(ICMIF)은 국제적 수준에서 보험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산업의 규모와 성장을 반영해 세계시장 정보지도를 선보였다.

정보지도는 2014년에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섹터가 27.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7년 23.5%와 비교해볼 때 크게 성장한 것이다.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섹터는 2014년에 1조3,000억 달러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고(2007년에 1조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 8조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2007년: 5조9,000억 달러)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모델은 2007년 이후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 기간 전 세계 보험시장이 전체적으로 13% 성장한 것과 비교해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분야는 31%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보험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고용된 직원 수(110만 명 이상)와 서비스 수혜자(9억2,000만 명)로도 확인된다.

공제조합과 협동조합 모델의 전 세계적 타당성은 6대륙을 통틀어 90개국 이상에서 보험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지도를 통해 명백해진다.

정보지도는 세계 공제조합 시장(보험 공제조합과 협동조합 규모와 성과에 관한 시장연구보고서)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발췌한 2014년 말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 ICMIF의 통합보고서 『세계 공제조합 시장』은 2016년 3월에 발간됐다.

### **D. 전 세계 의료공제조합**

국제공제조합연맹(AIM)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31개국에 64개 회원조직을 둔 의료공제조합과 질병보험기관 연합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국제공제조합협회(AIM)의 모든 구성원은 비영리조직으로, 약 2억4,000만 명에게 의료보장과 질병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성원 일부에게는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AIM의 구성원은 질병보험금고이거나 공제조합들이다.